

솔솔한 재미, 새들과의 대화

문성길(70, 남가주)



선배님들 중에 남
가주에 사는 식물학 대
가 한 분은 남들이 못
가는 DMZ를 정부 특

별 허가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오랫동안
(70년 동안) 훼손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
잘 보존된 각종 식물 생태계를 연구 조사
하며 업적을 쌓으신 분이 계시며 또 내가
살던 와싱턴 DC 지역의 다른 한 분은
꽤 오래전부터 바쁜 중에도 휴가 때면 카
메라 들러 메고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
니며 각종 새들을 관찰 기록 보관함이
취미인 것을 안다. 소위 자연과 소통하는
분들.

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집사람이 정
원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작은 터전에
장미며, 난초, 백합, 코스모스 등등을 심
고 정성껏 가꾸더니 얼마 전에는 새집을
사와 큰 나무 옆에 받침을 세워 걸어 놓
았는데 다람쥐 녀석들의 훠방으로 정작
새들 먹이가 그들의 뜻이 되었다고 하며
그들이 미치지 못하게 큰 나무로부터 멀
리 떨어져 새들 모이 집을 옮겨 놓았더니
좋아하는 새들, 특히 드물게 보는 파랑새
(행운을 가져다준다는)들이 와 먹이를
먹는 모습을 집사람 덕분에 필자도 아침
식사하며 뎅달아 즐기고 있다.

더 나아가 어디서 hummingbird 먹이
집을 사와 처마 밑에 걸어두니 말로만 듣
던 처음엔 고 자그마한 새들이 한두 마리
오더니 얼마 아니 돼서는 폐강도(?) 흥
흥처럼 무리로 달려온다. 요즈음 그들을
보며 즐기며 활영하느라 바쁘다.

선배님처럼 찾아다니며 새들을 관찰
즐기지는 못해도 내 집에 찾아오는 이 새
들을 내친 김에 좀 더 알아보니 참으로
신기하고 대단하다.

소개하면, 300여 종이 있다 하며(상주
형, 계절형, 희귀형, 우연형 등 각 주에
따라 다름) 가주에서는 Anna's(제일 많
은, 0.1-0.2oz ,3-6gm), Ruby-throated,
Rufous, Allen's(가장 원거리 이주 편도
4000마일, Calliope(제일 작은 0.1 oz, 3-
6gm, 흔히 발견됨) hummingbirds가 대
표적이라고 한다.

심장박동이 빠른 만큼 나르는 비행속
도 역시 빠르다(인간은 맥박이 분당 60에
서 100, 운동 시 150 정도이나, humm
ingbirds는 평소 500내지 600, 날 때는
분당 1000이 된다. 비행속도 시간당 28마
일이다.) 이주형은 겨울 동안은 멕시코,
중미지역에서 살다가 봄에 미국이나 캐
나다로 이주해온다고. 부화 후 대부분은
첫해에 죽지만, 살아남은 새들은 7년의
평균수명.

Humming birds 이름의 유래는 전체
체중에 비해 가슴과 날개가 잘 발달되어
있고 새 날개의 재빠른 운동으로 발생하
는 소리(humming: 윙윙거리는 마치 콧
노래 같다 해서)에서 왔다고 한다. 이 새
들의 특징은 걷지를 못하고 계속 날고 움
직이기 때문에 체중이라야 해보았자
0.1-0.2 ounces(2.8-5.6gm)의 1/3 정도
가 가슴 근육 살에 있단다. 시력과 청력
은 좋으나 후각은 발달돼있지 않다. 운동
량이 많아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찾아다
닌다고 한다.

암컷은 위장한 새 둉지를 짓는 것부터
부화기 때까지 돌보는 모든 일을 한다.

mating 제외하곤 수놈들은 효용가치
가 별무인 것 같은 건--ㅎㅎ.

여느 동물과 비슷하게 수놈의 깃털 색
갈이 더 요란한 이유는 암놈의 관심을 끌
기 위해서라니, ㅎㅎ, 동물들 뿐일까?